

김세진호 첫발 “SOOP 수퍼스만의 색깔 보여줄 것”

“SOOP 수퍼스만의 색깔을 확실하게 만들어가겠습니다.”

여자프로배구 SOOP 수퍼스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서 창단 첫 시즌을 향한 힘찬 출발을 알렸다. 새로운 사령탑과 선수단이 한자리에 모여 처음으로 훈련 과정을 공개한 가운데 ‘재밌고 새롭게 끈끈한 배구’를 앞세워 V리그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겠다는 각오다.

SOOP은 13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서 오픈트레이닝을 진행했다. 김세진 감독을 비롯한 코칭스태프와

창단 첫 오픈트레이닝서 각오…‘재밌고 끈끈한 배구’

주장 고예림 “좋은 성적 이유 질문받는 시즌 만들 것”

선수단은 이날 훈련을 통해 창단 첫 시즌을 준비하는 모습을 공개했다.

지난 6월 한국배구연맹(KOVO)의 승인을 받아 V리그 여자막내구단으로 출범한 SOOP은 김세진 감독을 초대 사령탑으로 선임한 뒤 선수단 구성과 전력 보강에 속도를 내왔다. 기존 선수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선수들을 잇달아 수혈했고, 지난달부터 광주체육관에서 본격적인 담금질에 돌입했다.

김 감독에게 SOOP은 또 하나의 도전이다. 과거 남자부 OK저축은행의 창단 사령탑을 맡았던 그는 이번에는 처음으로 여자배구단을 지휘하며 다시 한번 신생팀의 기틀을 다지는 중책을 맡았다.

김 감독은 “책임감이 막중하다. 팀이 없어질 수도 있었던 상황에서 다시 살려준 SOOP 모기업에 감사하고, 저에게도 다시 현장에 설 기회를 준 것에 감사하다”며 “남자팀에서도 그랬지만 결국 김세진이라는 이름값을 보고 데려왔다고 생각한다. 그 이름값을 하려면 남들보다 더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출범과 함께 발맞춰 지역민들과 함께 뛰는 팀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창단팀을 이끌어온 경험은 SOOP의 초대 사령탑을 맡는 데 강점으로 작용했다. 다만 처음 경험하는 여자배구라는 새로운 환경 속에서 선수단에 자신만의 색깔을

입히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김 감독은 “창단팀 감독을 해봤다는 경험에 이곳에 오게 된 이유 중 하나일 수 있지만 반대로 여자배구를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다는 맹점도 있다”며 “구단과 프런트, 팀 모두 젊다. 이 젊은 팀을 어떻게 이끌고 SOOP만의 색깔을 만들어내느냐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이들이 프로선수로서 역할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하는 게 제 역할이다. 선수들이 우리 팀에서 뛰는 것에 가치가 있다고 느끼도록 만들어주고 싶다”며 “그것이 당장 성적으로 연결된다고 보장할 수는 없지만 SOOP만의 색깔을 만드는 데 집중하겠다”고 언급했다.

무엇보다 선수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는 것을 강조했다. 기존 선수들은 한때 팀이 사라지면서 선수 생활의 기로에 놓였고, 새롭게 합류한 선수들 역시 트레이드 등을 통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상황이다.

김 감독은 “팀이 없어지면서 한때 실업자가 됐던 선수들이 다시 동지를 찾았고, 트레이드로 온 선수들도 마음에 상처가 있을 수 있다”며 “그런 부분을 잘 보듬어 시너지 효과를 만들고, 선수들이 독하게 마음먹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힘을 끌어내겠다”고 말했다.

김 감독의 팀 컬러는 분명하다. ‘재미’와 ‘새로움’, 그리고 ‘끈끈함’이다.

그는 “재밌고, 새롭게, 끈끈한 팀을 만드는 게 제 계획이자 목표다. 될 때까지



SOOP 수퍼스가 13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서 오픈트레이닝을 진행했다. 사진은 김세진 감독과 선수들에게 훈련 지시를 하고 있는 모습.

해보려고 한다”며 “선수들이 얼마나 이해하고 따라오느냐가 중요하다. 사람을 대하고 마음을 얻는 부분에는 자신이 있다. 코칭스태프와 선수단이 잘 융화된다면 선수들도 믿고 따라올 것이라 생각한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훈련 과정에서는 선수들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있다. 특히 주축 아웃사이드 히터들이 빠져나간 자리를 메우기 위해 꾸준히 전력을 보강하면서 새로운 조합을 찾는 데 집중하고 있다.

김 감독은 “훈련하면서 조금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는 아쉬움도 나온다. 선수들이 안 해봤던 동작이나 몸을 던지는 부분에서 소극적인 모습이 있지만 계속 시도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가능성을 가장 많이 보고 있다. 여러 선수들을 계속 돌려보면서 가장 좋은 조합을 찾아갈 생각이다”고 이야기했다.

구체적인 승수나 순위를 시즌 목표로 내걸지는 않았다. 창단 첫 시즌인 만큼 결과에 앞서 SOOP이라는 팀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구축하겠다는 생각이다.

김 감독은 “프로팀인데 계속 핑계를 대는 것은 의미가 없다. 몇 승을 하겠다는 목표를 이야기하는 것도 지금은 맞지 않는 것 같다”며 “내부결속을 다지고 전반적인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해서 외부에서 봤을 때 ‘저 팀은 왜 저래’ 이런 소리는 안 나오도록 만들고 싶다. 선수들이 인상 쓰지 않고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팀 컬러를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선수단 역시 새로운 출발에 대한 기대가 크다. 주장 고예림은 팀의 존재가 불투명했던 긴 시간을 지나 다시 코트에 설 수 있게 된 만큼 결과로 새로운 출발을 증명하겠다는 각오다.

고예림은 “정말 길었던 비시즌이었다.

실제로도 길었고 느껴지는 시간도 길었다”며 “처음 한두 달은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생각을 했지만, 지나면서 점점 조마조마했다. 그래도 결국 좋은 결과가 있었고 선수들도 각자 체력적인 부분 등을 준비하면서 시즌을 대비했다”고 돌아봤다.

새로운 유니폼을 입고 맞는 첫 시즌의 목표는 분명하다. 더 이상 최하위 탈출 여부가 아닌 ‘좋은 성적’을 이야기하는 팀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고예림은 “멤버들이 다시 모였지만 SOOP은 새로운 팀이고 다시 시작하는 만큼 좋은 성적을 냈으면 좋겠다”며 “지나년에는 더 이상 탈꼴찌에 관한 질문을 받고 싶지 않다고 이야기했다. 올해는 ‘어떻게 이렇게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었느냐’라는 질문받는 시즌을 만들고 싶다”고 힘차게 말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20경기 무승’ 광주FC, 포항 잡고 반전 노린다

내일 오후 7시 30분 광주월드컵경기장서 포항전

상대 5연패·전력 누수…득점력·시즌 2승 등 절실

프로축구 광주FC가 최근 5연패에 빠진 포항스틸러스를 상대로 지긋지긋한 무승 사슬을 끊고 반동의 발판 마련에 나선다. 광주는 오는 15일 오후 7시 30분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포항과 한수은행 K리그1 2026 23라운드 홈경기를 치른다. 앞서 광주는 부천FC1995와의 원정경기에서 0-0으로 비기며 승점 1을 추가했다. 시즌 성적은 1승 8무 13패 승점 11. 지난 3월 7일 첫 승 이후 무려 20경기째 승리를 거두지 못하며 리그 최하위인 12위에 머물러 있다.

이제는 승리가 절실하다. 시즌 일정의 후반부로 향하고 있지만 광주는 좀처럼 최하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전반기 국제축구연맹(IFFA)의 선수 영입 금지 징계와 주축 선수들의 잇따른 부상이라는 악재 속에서 힘겨운 시간을 보냈고, 여름 이적시장을 통해 대대적인 전력 보강에 나섰지만 아직 결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승강 플레이오프는 물론 다이렉트 강등에 대한 위기감도 갈수록 커지는 상황이다.

경기력 자체는 조금씩 안정감을 찾아가고 있다. 광주는 지난 부천전에서 슈팅 수 14-11, 점유율 59.9%로 앞섰고 442개의 패스를 기록하며 경기를 주도했다. 상대에게 쉽게 주도권을 내주지 않으며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펼쳤지만 결국 득점에는 실패했다. 좋은 경기력을 승점 3점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공격의 마침표를 찍는 결정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새롭게 가세한 선수들의 활약은 긍정적이다. 부천전에서 첫 리그 선발로 나선 베테랑 리영지는 지상 경험 성공률 100%,

패스 성공률 88%를 기록하며 공수에서 안정감을 더했다. 광주 유스 출신 미드필더 김우진도 K리그 데뷔전에서 왕성한 움직임과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선보이며 새로운 선택지로 떠올랐다. 기존 선수들과 여름에 합류한 자원들의 호흡이 점차 맞아가고 있다는 점은 남은 시즌 반동을 기대하게 하는 대목이다.

분위기도 나쁘지 않다. 최근 신창무와 프리드손이 부천 원정을 마치고 복귀하던 중 화재 차량에서 위험에 처한 운전자를 구조하는 데 힘을 보탠 사실이 알려지며 큰 박수를 받았다. 그라운드 밖에서 보여준 선수들의 용기와 선행으로 팀 전체에 긍정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진 만큼 이제는 홈 팬들 앞에서 승리로 또 한 번의 박수를 받겠다는 각오다.

상대 포항 역시 최근 상황이 좋지 않다. 포항은 최근 5연패에 빠지며 흔들리고 있다. 여기에 공격의 핵심이었던 이호재의 이적과 조르지·주닝요의 부상 이탈, 중원의 한 축인 니시야 켄토의 퇴장 징계까지 겹치면서 전력 누수도 적지 않다. 광주 입장에서선 길어진 무승을 끊을 절호의 기회다.

물론 방심은 금물이다. 포항에는 여전한 기성용과 안필손 등 경험 많은 선수들이 버티고 있다. 한 방을 갖춘 트란지스카와 새롭게 합류한 원기종 등 공격 자원도 경계 대상이다. 특히 광주는 올 시즌 포항과 두 차례 맞대결에서 모두 패한 만큼 상대의 최근 부진과 별개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설욕도 걸려 있다. 두 차례 패배를 안긴 포항을 홈으로 불러들이는 만큼 광주는



지난해 열린 코리아컵 경기에서 광주FC 신창무와 프리드손이 하이파비브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광주FC

강한 전방 압박과 주도적인 경기 운영을 앞세워 초반부터 승부를 걸어야 한다. 무엇보다 최근 이어지고 있는 안정적인 경기력을 득점으로 연결해 승리까지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라운드 밖에서 값진 선행으로 박수를 받은 광주가 이제 홈 팬들 앞에서 포항전 설욕과 20경기 무승 탈출에 성공하며 시즌 반전의 신호탄을 쏘아 올릴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한편 이번 홈경기는 제81주년 광복절을 맞아 독립유공자와 유족·후손으로 구성된 ‘광복회’ 광주시지부와 전남도지부를 초청한다. 각 지부의 지부장이 시축을

진행할 예정이며 기타 국가유공자들과 가족들은 단체관람을 함께하며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는 한편, 순국선열과 애국지사 의 숭고한 뜻을 기릴 예정이다.

경기 전에는 최근 K리그 통산 300경기 출전이라는 대기록을 달성한 주세종과 7월 K리그 ‘이달의 영플레이어’로 선정된 문민서의 기념행사가 진행된다. 하프타임에는 제81주년 광복절의 의미를 담은 ‘달려라 광주(81.5m 레이스)’를 진행하며, 최종 1위를 차지한 팬에게는 주세종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 제공에 나선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세한대, 스포츠단 확대…대학 체육 경쟁력 강화

태권도·유도 등 5개 종목 육성·지원체계 구축

축구·야구부 재창단·복싱부 신규 창단 추진

세한대학교가 체육부를 ‘세한스포츠단’으로 확대·개편하고 대학 스포츠 경쟁력 강화와 지역 체육인재 육성을 위한 새로운 도약에 나선다.

전남도체육회는 세한대학교가 기존 체육부를 세한스포츠단으로 확대·개편하고 태권도·유도·볼링·사격·씨름 등 5개 종목의 선수 육성 및 지원체계를 강화한다고 13일 밝혔다.

세한대는 이번 확대 개편을 통해 종목별 선수 육성체계를 보다 체계화하고 훈련 환경과 선수 지원을 강화하는 등 대학 스포츠의 경쟁력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종목 확대도 추진한다. 오는 2027년 축구부와 야구부를 재창단하고 복싱부를 새롭게 창단할 계획이다. 기존 5개 종목에 3개 종목이 추가되면 세한스포츠단은 총 8개 종목을 운영하게 된다. 이를 통해 다양한 종목의 우수 체육인재가 지역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종합스포츠단으로서의 역할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지역 체육과의 연계에도 힘을 쏟는다. 영암군 스포츠클럽과 국민체력100 영암체력인증센터 등 지역 체육 인프라와 협력해 유소년 스포츠 활성화와 체력관리, 선수 발굴·육성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지역의 우수 체육인재가 학교체육

을 거쳐 전문체육 선수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대학이 보유한 체육시설과 전문인력과 지역사회와 공유해 생활체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전문체육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에에도 활용할 방침이다.

전국체육대회 출전 규모도 늘어난다. 세한대는 지난해 열린 제106회 전국체육대회에 씨름 7명과 유도 7명 등 총 14명이 참가했다. 오는 10월 열리는 제107회 전국체육대회에는 24여명의 선수가 출전할 예정이다.

최미순 세한대학교 총장은 “이번 확대 개편은 대학이 보유한 체육 역량을 지역사회와 함께 나누고 체육인재들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선수들이 자신의 기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행정·시설·인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송진호 전남도체육회장은 “세한스포츠단 확대 출범은 대학 스포츠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물론 전남 서남권 체육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넓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우수선수가 지역에서 성장하고 다시 지역 체육 발전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